

독후활동지

바다, 어디까지 내려가 봤니? | 저넵베르토 아치넬리 글 | 줄리아 차파로니 그림 | 김여진 옮김

LUNCHBOX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매력적인 논픽션 그림책을 만듭니다.



바다, 어디까지 내려가 봤니?

해수면부터 심해까지
바다 동물과 누비는 여행



글
자넵베르토 아치넬리

그림
줄리아 차파로니

옮김이
김여진



도서출판 서네 이메일 jackie0925@gmail.com
인스타그램 seonaebooks

1. 책을 읽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은 어떻게 생겼나요? 그림으로 그리고 이름을 적어보세요.

동물 이름 : _____



2. 표해수대에는 다양한 바다 생물이 살아요. 생물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



3.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, 물범이 살기 어려워 지고 있어요. 내가 생활하면서 **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방법**을 이야기 해보세요

..... 20
..... 21
..... 22
..... 23
..... 24
..... 25
..... 26
..... 27
..... 28
..... 2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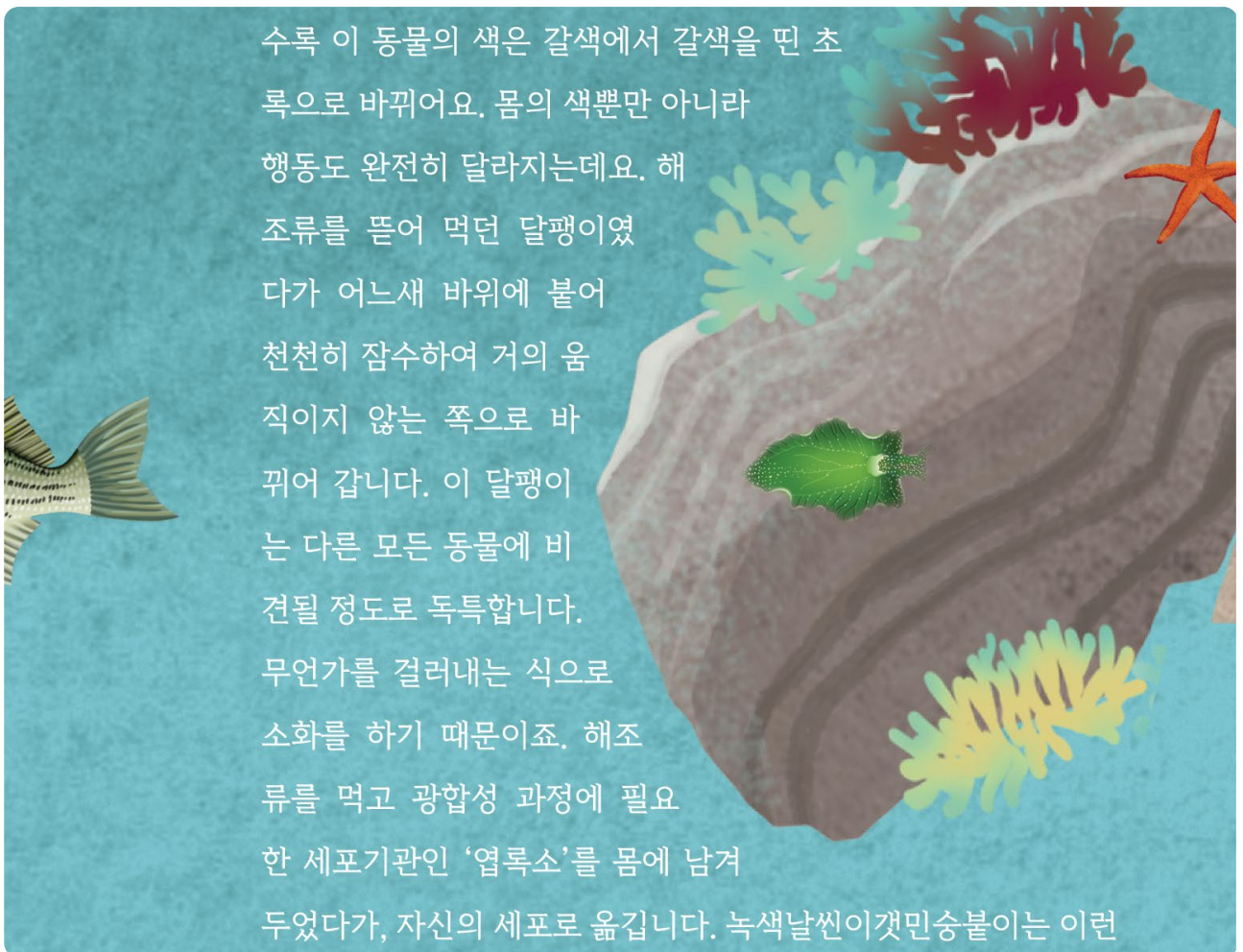
북극곰

북극곰은 육지에서 가장 몸집이 큰 포식자입니다.
하지만 험도 느리고, 잠수도 잘하지 못해요.
그렇다면 물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?
이 포유류는 물에 사는 동물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.
북극해에 뛰어들어 하루 최대 30킬로미터까지도 헤엄치니까요.
왜 이렇게 할까요?
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물범을 사냥하기 위해서죠.
최근에 이 얼음의 왕자는 (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북극곰을 이렇게 부르대요.) 위험에 처해 있어요.
지구온난화로 동물들이 올라탈 수 있는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, 결국 물범의 개체 수도 줄고 있는 것이죠. 우리는 북극에서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더라도 친환경적 실천을 통해 북극곰을 도울 수 있어요. 물범이 서식할 수 있는 얼음 덩어리가 녹지 않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북극곰도 광활한 북극해를 마음껏 헤엄쳐 다닐 거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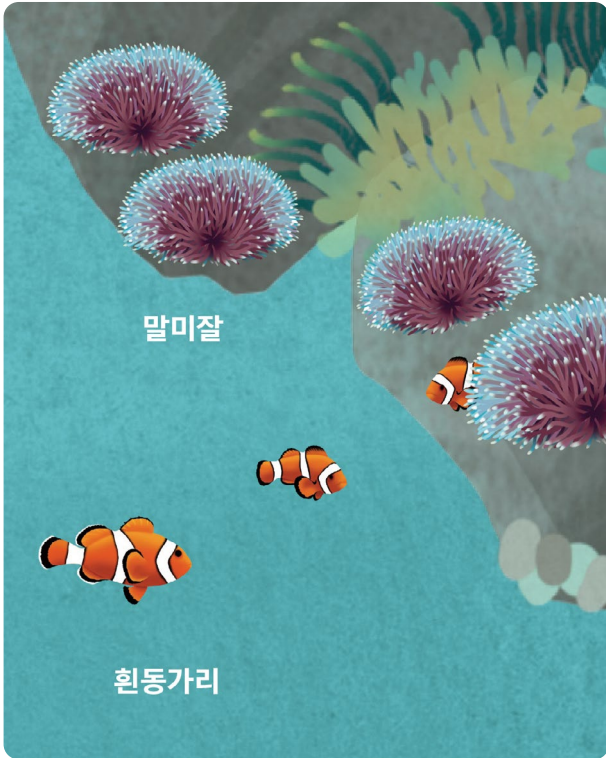


4. 녹색날씬이갯민숭불이는 동물인데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. 어떤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게 되었을까요?

수록 이 동물의 색은 갈색에서 갈색을 띤 초
록으로 바뀌어요. 몸의 색뿐만 아니라
행동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해
조류를 뜯어 먹던 달팽이였
다가 어느새 바위에 붙어
천천히 잠수하여 거의 움
직이지 않는 쪽으로 바
뀌어 갑니다. 이 달팽이
는 다른 모든 동물에 비
견될 정도로 독특합니다.
무언가를 걸러내는 식으로
소화를 하기 때문이죠. 해조
류를 먹고 광합성 과정에 필요
한 세포기관인 ‘엽록소’를 몸에 남겨
두었다가, 자신의 세포로 옮깁니다. 녹색날씬이갯민숭불이는 이런



5. 흰동가리와 말미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. 이 둘과 비슷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알아보세요.



6. '실러캔스'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려요.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요?



7. 플라스틱은 편리함을 위해 발명했는데,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물질이 되었어요. **플라스틱의 위험성**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.



The image shows a writing template with a light blue background. At the top, there are three seagulls in flight. Below them,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blue lines for writing. At the bottom right, there is a small illustration of a seagull standing on a rock. The overall design is clean and simple, suitable for a worksheet or a notebook page.

8. 심해저대 보다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이 적응해야 하는 것 중에는 높은 수압과 어둠, 생물의 부족이 있습니다. 이러한 환경에 적응한 동물을 상상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설명해 보세요.

